



[산업] LG전자 'LG 벨벳' 디자인 세미나 06



Economy

코스피	1960.61 (+43.50)	코스닥	696.36 (+5.51)
금리 (2년)	0.876 (-0.011)	환율 (원/달러)	1225.30 (-7.10) (19일)

# “꿈의 백신” 코로나 정복 성큼

## 모더나 “임상 전원항체”... 연내개발 완료 에이프로바이오 등 코스닥 관련주 급등

미국 바이오기업인 모더나 테라퓨틱스(이하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모더나가 급등 마감한 데 이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모더나 관련주로 꼽히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동반 급등세를 나타냈다.

### ◆7.5조원 지원, 올 가을 백신 개발

19일 바이오업계와 미국 언론에 따르면 모더나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후보(mRNA-1273)에 대한 임상1상 결과, 임상시험 참가자 45명 전원에게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날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모더나는 전일보다 19.96% 오른 80달러에 마감했으며, 장중 25% 까지 급등했다.

모더나는 백신 개발을 위해 투자받은 금액만 7조원이 넘는다. 모더나는 미국 정부로부터 약 50억 달러(약 6조 원)의 지원금을 받는데 이어, 이날 백신 개발을 위해 13억4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고 밝혔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1상은 18세에서 55세 사이의 45명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25μg(마이크로그램), 100μg, 250μg에 대해 3가지 용량 강도 중 하나를 28일 간격을 두고 두차례 투여했다.

회사측은 두차례 투여 후 가장 약한 복용량인 25μg 그룹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중화 항체가 형성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 복용량(250μg) 환자 중 3명이 열, 근육통 및 두통을 앓았지만, 하루 만에 증상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모더나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탈 작스 박사는 “100μg 용량을 모두 투여한 10명은 회복 혈청에서 보이는 수준을 초과하는 항체 수준을 가짐을 확인했다”며 “적은 용량으로도 충분한 면역성을 끌어냈고, 모든 부작용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시적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모더나는 앞서 지난 7일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mRNA-1273’에 대한 2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면서 조만간 6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더나는 오는 7월 후기 임상을 시작할 올 가을에는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에 공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백신 개발에 최소 1년~1년반의 기간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 ◆모더나 관련주 동반 급등세

이날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모더나 관련주들이 동반 폭등하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에이프로바이오는 이날 가격제한폭(29.91%) 오른 747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이프로바이오는 모더나의 2대주주인 로버트 사무엘 랭거 MIT 석좌교수가 사내이사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몰렸다. 랭거 교수는 모더나의 창립 멤버이며 지분 3.6%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프로바이오의 전신인 유지인트는 지난해 8월 바이오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랭거 교수를 사내이사로 영입한 바 있다. 당시 회사측은 전체 지분율의 2.02%에 해당하는 330만주의 스톡 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랭거 교수에게 지급하며 주목을 받았다.

랭거 교수는 코넬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등 34개 명에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엘리자베스 여왕 공학상’을 비롯, 찰스 스타크 드레퍼 상 등 220여개 상을 수상한 바이오 전문가다. 랭거교수의 임기는 오는 2022년 8월 까지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파미셀은 장중 25% 급등세를 나타냈다. 파미셀은 모더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바이러스 분자진단에 필요한 진단시약과 유전자 치료제의 주원료로 알려진 ‘뉴클레오사이드’를 생산하고 있다. 파미셀은 이달 초 길리어드가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도 뉴클레오사이드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급등한 바 있다.



고3 등교 앞두고 꼼꼼한 방역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를 하루 앞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신고등학교에서 국군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은행 부실펀드 1조 先보상 고객달래기 vs 모럴해저드

## 환매 중단 금액 총 1조1136억원 은행, 신뢰회복 위해 보상 추진 투자자 책임원칙 훼손 등 지적도

시중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 가운데 올해 1조원 가량이 상환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투자자의 예상 손실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운용사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 중에서 올해 환매가 중단된 금액은 총 1조113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528억원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871억원이 몰렸고,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에서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이밖에도 경남·농협·산업은행도 라임펀드로 각각 276억원, 89억원, 37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 ◆은행, 선지급 방안 마련 분주

이에 따라 은행들은 투자자에게 예상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피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금융감독원이 전달한 비조치 의견서도 한몫했다. 비조치 의견서에는 은행이 투자손실을 일으킨 사모펀드에 대해 선보상 하더라도 향후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시장법상 판매사의 위법가능성이 불명

## 〈환매중단된 사모펀드〉 (단위: 억원)

은행	펀드	판매
신한	라임펀드	2713
	디스커버리 미국 부동산 대출 펀드	651
	아름드리 무역금융펀드	240
우리	라임펀드	5177
하나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528
	라임펀드	871
기업	디스커버리 DLG 채권신탁	240
	디스커버리 DLG 채권신탁	695
경남	디스커버리 미국 부동산 대출	219
	라임펀드	276
농협	라임펀드	89
산업	라임펀드	37

확한 경우 사적 화해 수단으로 손실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은 투자자에게 예상 손실액의 30%를 보상하는 방안과 펀드 평가액의 75%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이사회를 통해 선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7개 은행이 모두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업은행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에서 환매가 지연되고 있는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글로벌채권펀드에서 695억원, 부동산 담보부 채권펀드에서 219억원 환매지연이 발생한 상태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美 메사추세츠 주 캠퍼리지 소재 모더나 본사.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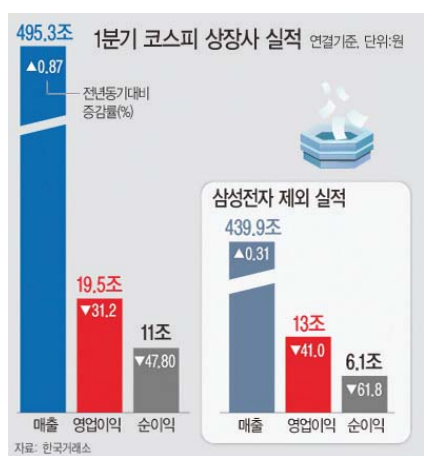
# 코로나 쇼크... 상장사, 영업이익 31% 급감

## 대장주 삼성전자 의존도 여전히 삼성 제외 영업이익 41% 줄어

국내 상장사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매출액은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결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영업이익(이하 연결기준)은 전년 동기보다 8조8328억원(31.20%) 감소한 19조477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배기업소유지분순이익은 같은 기간 8조6954억원(44.77%) 하락한 10조7246억원을 나타냈다. 전체 매출액은 495조27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조3000억원(0.87%)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11조33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조1032억원(47.80%) 줄었다.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 역시 각각 1.83%포인트, 2.08%포인트 하락한 3.93%, 3223%를 기록해 수익성이 악화됐다.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았다. 전체 매출액에서 11.16%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0.98% 떨어진 13조299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439조9484억원, 순이익은 6조1487억원으로 40.98%, 61.79% 감소했다.

부채비율도 높아졌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117.54%로 지난해 말(112.96%포인트)보다 4.58%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희비도 분명했다. 전기가스업(252.32%), 의약품(66.57%), 음식료품(45.83%) 등 6개 업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반면 서비스업(-61.11%), 비금속광물(-49.15%), 기계(-41.97%)는 대폭 감소했다. /송태화 기자 alvin@